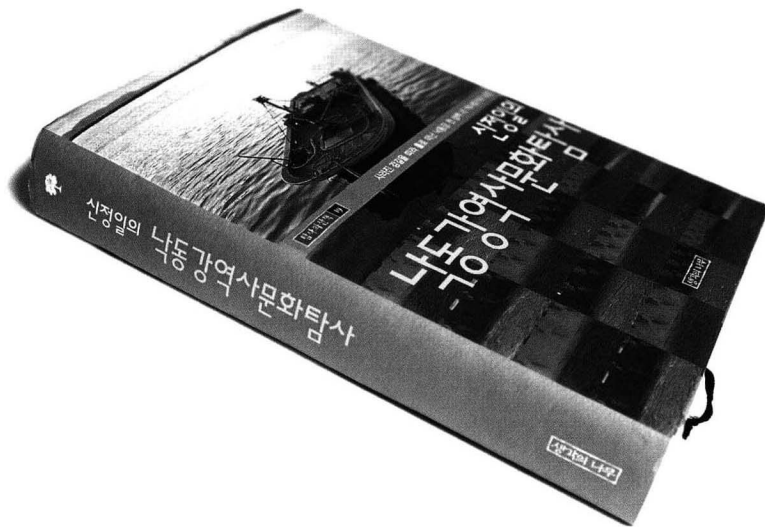


《신정일의 낙동강역사문화탐사》 신정일 지음 | 생각의나무 | 456쪽 | 값 22,000원



발품팔아 들려주는 강의 말, 강을 따라 걸으며 물소리를 들어라!

재야 사학자 신정일 씨가 금강과 섬진강 탐사에 이어 내놓은 낙동강 답사기인 《신정일의 낙동강역사문화탐사》는 발로 쓴 낙동강 지역의 역사와 풍물, 문화 탐사기이다. 저자는 13일 간 낙동강의 발원지인 태백산 황지에서 을숙도까지 직접 천삼백 리를 홀로 걸으며 얻은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기행문을 완성하였다.

‘역사문화탐사’ 라는 경직된 제목과 달리 여행중 만난 사람들의 인심에 대한 가감 없는 묘사와 우리 문화를 각별한 애정으로 바라보는 저자의 단상들이 어울려 있다. 길을 매개로 일어나는 작가의 개인적인 상념과 곳곳에서 인용된 철학적 문구와 시구들이 문학적 기행문의 향취마저 풍기고 있다.

때문에 새로운 학문적 발견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도 이 책이 의미를 얻는 것은 우리의 이웃과 문화에 대한 따뜻한 시선에서 비롯된다. 뿐만 아니라 저자가 직접 발로 걸으면서 찍은 우리 강과 산과 사람을 담은 150여 컷의 컬러 사진 또한 귀한 자료로서 제공되고 있다.

9·11 테러가 있던 지 3일 후인 2001년 9월 14일, ‘모든 것들이 이해될 수 없고 이해시킬 수도 없는 혼돈’이라는 흔들림 속에서 저자는 태백으로 길을 떠났다. 낙동강은 태백시 화전동에서 정선군 고한읍으로 넘어가는 짜리채를 사이에 두고 금대봉과 함백산 사이 천의 봉 너덜샘에서 발원한다. 이곳 화전동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역인 추전역이 있고 저자는 이곳에서부터 낙동강 천삼백 리 여정을 시작했다.

저자는 힘든 여정에서 빚어지는 신체적인 고단함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 혼자라는 데서 비롯되는 절대적인 고독과도 싸운다. 승부역을 지나면서 더 이상 강 길을 따라 갈 수 없으니 열차를 타라는 승무원의 말에 저자는 ‘낙동강을 따라 걷는 내가 열차를 탄다거나 되돌아간다는 것은 안될 말’이라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철길을 따라 걸기로 한다. 칠흙같이 어두운 승부터널을 지나면서 저자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체험한다. 그 속에서 절실히 깨달은 것은 ‘죽음이란 저기 또는 여기에 있지 않고 모든 길 위에 있다’는 평범한 진리였다.

임기 소수력발전소에서는 길을 물을 사람조차 없는 길을 혼자서 걸으며 절대로독과 부딪힌다. 저자는 이때 인간에 대해 '강물처럼 어느 지류라도 다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싶다'고 깨닫는다. 복잡한 인간관계에 묻혀 있을 땐 정작 알 수 없는 깨달음일 것이다. 드디어 도착한 합강 나룻터, 사람을 만났다는 반가움도 잠시 그는 또 길을 재촉한다.

'조선 인재의 반은 영남에 있고 영남 인재의 반은 선산에 있다'는 말이 전해져오듯이 곳에서 배출된 인재들은 많다. 김종직, 김굉필, 이황, 유성룡, 조식 등의 옛 학자들뿐 아니라 박정희, 노태우, 노무현 등의 대통령을 배출한 고장이다. 하지만 저자가 걸어본 낙동강은 걸출한 인물배출과는 달리 심각한 상태로 썩어가고 있었다. '물의 가르침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 물을 마셔라'는 선종의 가르침대로 강을 이해하기 위해 그 강을 따라 걷기 위해 길을 떠났지만 저자가 강길에서 발견한 것은 개발 열풍에 휩싸여 변모하고 만 오염된 낙동강의 참혹한 모습이었던 것이다. 강이 일찍이 인류문명의 발상지라는 말과는 달리 지금 강 주변은 낙후된 채 주목받지 못하고 강 길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이다.

하지만 이전의 강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 숨쉬던 삶터였다. 모든 길은 강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마을 역시 강 길을 따라 들어섰었다. 사람들의 편의에 의해서 직선적인 길만을 만들다 보니 강 길은 인위적으로 조작되고 찢어진 것이다. 녹조가 가득 낀 안동댐, 폐광에서 흘러내린 물이 흐르고 있는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천, 아연광산으로 오염되고 있는 석포 등은 오늘날 우리의 강줄기엔 마실 물도, 가르침을 받을 물줄기도 없음을 확인시켜줄 뿐이었다.

황폐화된 자연 속에서 사는 인간도 생기를 잃을 수밖에 없다. 1973년 안동 다목적댐이 건설됨에 따라 수몰민이 된 안동사람들은 삶의 터전과 희망을 잃었고 작년 여름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남긴 태풍 '루사'의 참혹한 흔적을 남기며 농민들을 망연자실함에 빠뜨려 버렸다.

저자가 여정을 통해 건진 가장 큰 수확은 훈훈한 푸진 인심들이었다. 새참으로 먹으며 찢 옥수수를 싸주던 나룻터의 부부, 힘든 일 한다고 소주를 사주던 노인, 혼자 먹는 밥이 외롭지 않냐며 밥을 사주었던 토목기사 등이 그의 여정을 결코 외롭지 않게 했던 것. 전라도 토박이로 살면서 경상도 촌부들의 인심을 그대로 느낀 저자는 '지역감정이란 위정자들이 만들어낸 이익의 소산'이라는 걸 확인한다.

병산서원, 이육사의 생가터, 퇴계 종택, 도산서원, 전교당, 시시단 등의 유교 문화유적들과 신세동 칠층석탑, 제비원 석불, 봉정사 극락전, 의상이 창건했다는 개목사 등의 불교 유적들, 이 밖에도 하회마을, 유성룡 고택, 유은룡 고택, 부용대, 부석사 등의 유명한 유적들에 대한 생생한 답사기도 흥미롭다.

"강물은 감자를 심지 않네 목하도 심지 않네. 심는 사람은 잊혀지지만 유장한 강물은 흘러서 갈 뿐. 유장한 강물은 흘러서 갈 뿐." 저자는 유장하게 흘러가는 강물 얘기를 하며 황폐해진 우리 강의 모습이 떠올라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낀다며 안타까워한다. 저자가 흥금을 터놓고 말하는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은 우리 강 길에 대한, 새로운 물줄기로 들어서는 느낌에 사로잡힌다. 그의 발품 덕에 우리는 마음 속으로 낙동강 가를 거닐게 될 것이다. ■■